



히든싱어 MC 전현무

음악 예능 강자 '히든싱어'

JTBC 예능 최다 시즌 ... 시청률 8% 출발 순조
사이·린 등 화려한 출연진·다양한 장르로 눈길



JTBC '히든싱어'가 여러 음악 예능의 등장에도 제 자리를 굳게 지키며 저력을 발휘하고 있다. 국내 대표 가수들과 그 가수의 목소리부터 장법까지 완벽하게 소화하는 모창 도전자가 출연하는 '히든싱어'는 3년 만에 다섯 번째 시즌으로 돌아왔다.

JTBC 예능 중에서는 최다 시즌이다. 22일 날스코리아에 따르면 히든싱어 5회 시청률은 5.5%, 2회는 5.4%를 기록했으며 사이가 출연한 3회에는 7.9%로 경중 뛰어올랐다. 3회는 수도권 기준 시청률 8.8%로 전 시즌을 통틀어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지난 15일 방송된 5회 린 편도 수도권 기준 시청률 7.7%로 집계됐는데, 특히 젊은층의 호응을 얻어 2049(20-49세) 시청률이 5.5%로 전 시즌 자체 최고를 달성했다.

3년이라는 공백기를 가졌음에도 같은 포맷으로 방송되는 '히든싱어'가 상승장구하는 비결은 우선 매회 경쟁한 가수들을 섭외하는 데 있다. 2012년 방송된 시즌 1부터 박정현, 김경호, 성시경, 조관우, 이문세, 김건모 등 노래라는 가수들이 출연했다.

장르도 가리지 않는다. 트로트 가수 장운정과 박현빈이 출연했으며 이번 시즌에는 처음으로 댄스 가수인 사이가 출연했다. 실존하는 가수뿐만 아니라 고(故) 김광석의 목소리를 복원해 김광석 편을 꾸미기도 했다. 원조 가수의 팬인 모창 도전자들의 실력이 수준급인 점도 또 다른 인기 요인이다.

시즌 2 신승훈 편과 조성모 편, 시즌 3 이승환 편과 태연 편, 시즌 4 김진호 편과 민경훈 편, 시즌 5 강타 편에서는 모창 도전자가 원조 가수를 누르고 우승했을 정도다. 우승한 모창 도전자들은 그룹을 만들어 활동하기도 했다.

모창 도전자들과 원조 가수가 통 안에 들어가서 얼굴을 숨기고 노래를 부른 뒤 각 라운드별로 투표를 통해 진짜 가수를 가리는 프로그램 포맷 자체도 다섯 번째 시즌이 진행되는 동안 시청자들의 관심을 꾸준히 받고 있다.

이 포맷은 중국, 태국, 이탈리아, 미국 등 해외로 수출되기도 했다. 다만 일부에는 시즌 5를 맞은 지금은 포맷이 단조로워진 데다, 음색이 독특해 모창이 힘든 가수는 출연이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히든싱어'의 조승욱 CP는 프로그램의 꾸준한 인기 비결을 팬들이 함께 꾸미는 무대라는 사실에서 찾았다. 그는 최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모창해서 누가 진짜 가수인지를 가려내는 추리게임의 요소도 분명히 있지만, 가수와 그 가수를 좋아하고 닮고 싶어하는 팬들이 꾸미는 무대라는 것이 '히든싱어'의 특징"이라며 "이 과정에서 우리가 몰랐던 가수의 인생 이야기, 음악의 재밌는 뒷이야기, 모창하는 팬들의 마음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CP는 "제작진 모두 각 회가 가수의 특징 소라는 마음으로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굵직굵직한 가수들을 섭외해온 '히든싱어'가 앞으로 또 어떤 국내 정상급 가수를 출연시킬지도 화제다. 앞서 제작진은 조승필, 박효신, 김동률, 나얼, 이소라, 비를 섭외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고 김광석 편이나 신해철 편과 같은 참신한 시도도 이어질지 주목된다.

조 CP는 "시즌 5도 앞선 시즌과 같이 11~13회 정도로 하게 될 것 같다"며 "이제 라인업 섭외가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오랜만에 안방극장 돌아온 이영아·홍수아

KBS '끝까지 사랑' 오늘 첫 방영

정말 사랑했지만 어쩔 수 없이 이별하고, 지금은 죄도 없이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있다. 그런가 하면 모든 걸 가졌으면서도 그에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 다른 인생을 망쳐버리는 인물도 있기 마련이다.

KBS 2TV '끝까지 사랑'은 주로 주부나 중년 시청자가 많이 보는 저녁 일일극답게 선과 악의 뚜렷한 대립, 그리고 가족과 멜로를 전면에 내세웠다.

주인공 한가영(이영아 분)은 부모의 이혼과 지난 속에서 컸지만 자존감도 활력도 넘친다. 아버지에게 아내의 빈자리를 채워줬던 동반자이자 등불 같은 딸이고, 오빠에게는 짝하고 여여쁜 누이, 엄마에게 그저 미안하고 가슴 아픈 딸이다. 또 한 남자에게는 일생에 단 한 번의 끝까지 가는 사랑을 한다.

한편 그와 대립하는 강세나(홍수아)는 아름답고 영리하고 독한 커리어우먼, 사랑스러운 아내이자 며느리지만 속은 야망과 욕심으로 뒤를 려 있다.

강세나의 잘못된 욕망으로 인해 번번이 인생이 꼬이는 한가영은 끝내 사랑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한가영 역을 맡은 배우 이영아는 20일 제작발표회에서 "3년 만에 복귀한다"며 "갈증이 생겼을 때 PD님이 손을 내밀어 주셔서 신인의 마음으로



홍수아(왼쪽)와 이영아

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세나 역의 홍수아 역시 이번 작품으로 5년 만에 국내에 복귀했다. 그동안 주로 중국에서 활동해온 그는 "너무 국내 작품을 하고 싶었다. 아주 오래전 '대왕의 꿈'에서 신장석 PD, 이영아와 함께했는데 또 다시 만나 기분이 좋다. 또 첫 약역이다"라고 말했다.

대본은 '다 잘될 거야' (2015), '가시나무 새' (2011), '에어시티' (2007) 등을 쓴 이선희 작가가 집필하며 연출은 '꽃피어라 달순아' (2017), '대왕의 꿈' (2012), '무인시대' (2003) 등에 참여한 신장석 PD가 맡는다.

이영아와 홍수아 외에도 강은탁, 심지호, 박광현 등이 출연한다. 오는 23일부터 평일 오후 7시 50분 방송. /연합뉴스

차태현-배두나, KBS '최고의 이혼'서 호흡

배우 차태현(42)과 배우나(37)가 KBS 2TV 새 월화극 '최고의 이혼'에서 만난다. KBS는 오는 10월 방송 예정인 '최고의 이혼'에 차태현과 배두나, 이엘, 손석규가 출연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드라마는 '결혼은 정말 사랑의 완성일까'라는 물음에서 시작해 사랑, 결혼, 가족에 대한 남녀의 생각 차이를 유쾌하고 솔직하게 그려낸 로맨스 코미디극이다. 드라마 '마더'의 원작자 사카모토 유지가 쓴 또 다른 히트작으로, 국내 리메이크 소식이 알려짐과 동시에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차태현과 배두나, 이엘과 손석규는 각기 다른



차태현 배두나

부부의 모습을 그린다. 연출은 '브레인', '내 딸 서영이', '착하지 않은 여자들'의 유원기 PD가 맡는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2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 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비밀과 거짓말(재)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살맛나는 세상	35 닥터 365 40 나도 엄마야
9	30 KBS 뉴스	00 파도야 파도야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민감통 경찰청장 후보자 감선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40 지구촌 뉴스	50 검법남녀 (재)	1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너도 인간이니?(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검법남녀 (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열린공간 토크 Talk
1	00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50 동물의 건축물 플러스	2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0 차승우돌 만국 유람기 스페셜	55 닥터 365
2	00 민감통 경찰청장 후보자 감선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00 KBS 뉴스타임 10 영화가 좋다(재)	25 헬로키즈 신비한 자연교실	00 뉴스브리핑
3		00 자공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사이닝스타 55 뽀뽀뽀 모두야 놀자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20 비밀과 거짓말(재)	00 토크 콘서트 화통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살림하는 남자들(재)	00 5 MBC 뉴스 20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0 생방송 빛날	00 순간포착 세상을 이룬일이(재)
7	00 KBS 뉴스 7 35 우리말 겨우기	50 끝까지 사랑	15 비밀과 거짓말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10 생방송 TV블로그 폼지락
8	25 내일도 맑음	30 글로벌24 55 제보자들	55 차승우돌 만국 유람기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 9			
10	00 가요무대	00 너도 인간이니?	00 사생결단 로맨스	00 서바이버 열일곱입니다
11	00 KBS 뉴스라인 40 다크세상	10 안녕하세요	10 MBC 스페셜	10 통상이몽2 너는 내운명 1~2부
12	30 이웃집 찰스(재)	35 비바 K리그	10 스포츠 다이어리 25 세상의 모든 사람 스페셜	30 나이트 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30 한국기행(재)
05:30 세계견문록 아름다운 <미국 서부 트레일 캐니언랜드.아치스.세도나>	10:50 최고의 요리비결 <피프리카 해산물 냉채/피프리카 냉파스타>
06:00 한국기행(재)	11:20 세계테마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정오뉴스
07:0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12:10 극한직업 스페셜
07:30 띠띠뽀 띠띠뽀	13:00 다큐 오늘
08:00 당동당 유치원1~2	13:10 글로벌 가족정착기-한국에 산다
08:30 몬카트(재)	13:40 배워서 남줄람(재)
08:45 방귀대장 뽀뽀	14:30 몬카트(재)
09:00 뽀뽀뽀 뽀로로	15:00 마사와 곱 스페셜
09:15 뽀로로와 노래해요	15:15 파프리카
09:30 우리는 비트몬스터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09:4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스페셜	15:45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16:15 뚝딱맨
	16:30 방귀대장 뽀뽀(재)
	16:45 당동당 유치원1~2(재)
	17:15 마사와 곱
	17:30 띠띠뽀 띠띠뽀
	18:00 생방송 퓌!퓌! 보니하니1
	18:05 EBS 점박이 공룡대백과
	18:20 생방송 퓌!퓌! 보니하니3~5
	19:00 몬카트
	19:30 EBS 뉴스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20:40 세계테마기행
	21:30 한국기행
	21:50 EBS 다크프라임
	22:45 부모성적표 스페셜
	23:55 배워서 남줄람(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23일 (음6월 11일 丙辰)
<p>子 36년생 자기 확산에만 치우친다면 객관성을 상실할 수 있다. 48년생 돌발적인 변수의 상황까지 예견해야 하느니라. 60년생 준비가 아니라 강도의 문제이니라. 72년생 어깨러다가 매우 소중함을 잃을 수 있다. 84년생 밝게까지 번거롭겠다. 행운의 숫자 : 37, 89</p> <p>丑 37년생 예상치 못했던 데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49년생 길사가 발생할 징후가 역력히 보인다. 61년생 실로적인 거점을 확보하게 되는 쾌거가 있다. 73년생 찬스란 얻기는 어려우나 놓치기는 쉬운 법이다. 85년생 희생이 따른다. 행운의 숫자 : 25, 10</p> <p>寅 38년생 처음에 단추를 잘못 꿰면 끝까지 속 썩인다. 50년생 무의식적인 오류가 나타날 수도 있다. 62년생 쫓 대를 갖고 소신껏 행하면 무리가 없다. 74년생 양호한 기 반이 원만한 전개를 담보한다. 86년생 명심해야만 실수 하지 않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5, 31</p> <p>卯 39년생 절대로 현혹되어서는 아니 된다. 51년생 기회가 왔으니 망설이지 말고 실행하라. 63년생 참으로 질기면 서도 미묘한 인연 앞에서 당황 하리라. 75년생 대동소이 하다. 87년생 대체로 순위를 타게 되지만 변수도 보인다. 행운의 숫자 : 08, 25</p> <p>辰 40년생 절대로 시련을 두려워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52년생 방심하다가가는 급락을 면치 못할 것이다. 64년생 정밀한 검토와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하다. 76년생 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88년생 귀한 이가 매우 소중한 것과 관련 시켜 주리라. 행운의 숫자 : 24, 12</p> <p>巳 41년생 파격적인 발상이 국면을 전환 시킬 수 있다. 53년생 안정권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65년생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77년생 과신하거나 낙관한다면 위험을 자초하게 된다. 89년생 일회성일바가 수시로 교차하는 국면이다. 행운의 숫자 : 49, 98</p>	<p>42년생 확실히 추진하고 볼 일이다. 54년생 체계적인 정리와 관리가 계속되어야 한다. 66년생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해결이 가능하다. 78년생 준비물을 빠짐없이 챙겨야겠다. 90년생 단단히 각오하고 팀버야만 결말 이 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7, 66</p> <p>43년생 내버려둬도 자연히 해결 되느니라. 55년생 형평성 있는 시각이 현명한 판단을 낳으리라. 67년생 잠시 보류해 두는 것이 마땅하다. 79년생 한 번만으로는 불완전 하므로 여러 번 신경 써야 한다. 91년생 희망의 빛이 서서히 비추었다. 행운의 숫자 : 55, 65</p> <p>44년생 일반적인 보편성과 균형 감각이 절실하다. 56년생 구체적으로 세분화 할수록 이롭다. 68년생 곁과 속이 짝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80년생 어떻게 처신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92년생 희귀한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행운의 숫자 : 43, 58</p> <p>45년생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달라질 수 있다. 57년생 기대 했던 바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보게 된다. 69년생 너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81년생 행운이 따르는 날이다. 93년생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68, 91</p> <p>34년생 우회하는 것이 좋다. 46년생 쉽지 않은 것을 많이 맹목적으로 낙관하지 말고 조심성 있게 다루자. 58년생 점점 관심을 끄는 일이 생기리라. 70년생 저절로 웃음이 배어나오는 흥왕의 위상이다. 82년생 변경될 가능성이 높우하다. 행운의 숫자 : 33, 50</p> <p>35년생 순수운 방법부터 적용하는 것이 좋다. 47년생 결실이 예정되는 판도이니 기쁘게 파종하자. 59년생 처음으로 대하는 이나 기회와의 인연이 기대 된다. 71년생 깊이 생각한 후에 결정을 내리자. 83년생 부실하다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19, 44</p>